

研究論文

김동인 소설의 탈신화적 여성성과
전략적 죽음을 통한 근대성 고찰*
- 「감자」, 「배따라기」, 「광화사」를 중심으로 -

표 정 옥**

I. 서론	V. 결론
II. 여성배제의 근대화 논리	<참고문헌>
III. 탈신화적 여성성과 근대성	<국문요약>
IV. 전략적 죽음과 근대성	

I. 서론

작가에게 있어 실제적 삶은 작품과는 乖離될 수 없는 필연적인 역학 관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동인이라는 작가를 자연주의나 낭만주의 혹은 탐미주의 등의 문예사조에 너무 結縛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외래사조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김동인을 평가하는 것에 비판을 제기한 이동하¹⁾는 김동인의 삶과 문학을 함께 조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동하는 김동인의 인물제시 방식을 그의 성장과정에서의 인간에 대한 오만한 태도의 연장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작가가 주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다(KRF-2006-353-A00078).
 ** 서강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국어국문학 전공(pyowu@paran.com).
 1) 이동하, 「김동인의 삶과 문학」, 『金東仁 短篇 全集 I』, (가람기획, 2006), 11~25쪽. 김동인은 人間을 尊敬할 줄 모른다고 主張한다. 「광엽소나타」의 백성수와 같은 천재 예술가나 「운현궁의 봄」에 나오는 흥선군, 「대수양」의 수양대군 같은 超人的 英雄이 있을 뿐, 그 나머지 대다수의 善男善女는 모두 蔑視한다.

인공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김윤식²⁾의 ‘인형조종술’의 해석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견해다. 인형조종술은 참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창조하고 자유자재로 인형 놀리듯 하는 것이 작가의 권리라는 논리인데 김동인의 인물들이 겪는 죽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동하는 김동인의 출신 배경, 시대적 위치, 삶의 방식과 문학 작품을 연결해서 그의 작품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간에 대한 멸시를 감추지 않는 작품 군으로는 「대탕지 아주머니」와 「김연실전」을 들고 있으며 제멋대로 공상에 탐닉한 작품 군으로는 「광염소나타」, 「광화사」, 「감자」 등을 든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傳奇的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자칫 문학 작품을 다양한 해석의 텍스트로 이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문예사조와 전기적인 측면을 서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주제적인 접근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김동인의 문학을 1920년대 일제치하의 광기와 질병의 증후로 바라보는 이재선³⁾의 관점은 문학 해석의 공간을 넓히고 있다. 예술의 영감을 얻기 위해 악마의 수태, 즉 악마적 顯現으로서의 범죄성을 들고 있으며 예술의 가치가 삶의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동인의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여성인물들의 삶의 방식을 들 수 있는데, 송현호⁴⁾는 김동인 소설의 여성문제를 지적하면서 김동인 소설의 여성들이 동양적 윤리와 전통에 얽매어 남성들의 부당한 횡포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한다고 지적한다. 김동인 작품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연애조차도 스스로의 내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근대적인 자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⁵⁾고 평가 받는다.

본 논의는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이 작품 내적인 분석을 통해 작가의 근대성을 밝히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작가의 세계관이 작품 안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작품의 여성성과 죽음을 통해 김동인이 근대성을 어떻게 귀납적으로 구현하려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김동인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배따라기」, 「광화사」, 「감자」 등을 대상으로 근대성과 여성성, 근대성과 죽음의 재현을 신화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세 작품이 한 카테고리

2) 김윤식, 『韓國近代作家論考』(일지사, 1974), 28~31쪽.

3) 이재선, 『現代小說의 敘事 主題學』(문학과 지성사, 2007), 48, 57쪽.

4) 송현호·유려아, 「郁達夫와 김동인 소설의 여성문제」, 『比較文學論』(국학자료원, 1999), 155~177쪽.

5) 엄미옥,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구조 연구: <약한 자의 슬픔>, <마음이 열린자여> <김연실전>을 중심으로」, 『詩學과 言語學』, 10호(2005), 223쪽.

로 유형화 된 근거는 여성과 근대가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과 여성들의 죽음이 근대성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다. 그리고 여성과 근대를 이해하는 코드로 신화적 논의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신화적 해석의 근거는 문학작품이 전통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현실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질베르 뒤랑에 의하면 신화적 담론은 원형으로서의 근본적인 위상, 역할이 분화되어 나타나는 위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있게 되는 위상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⁶⁾ 이러한 맥락으로 김동인을 신화적 담론으로 분석한 기존 논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유기룡⁷⁾은 <배따라기>를 신화학적인 시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죽음과 재생의 원형적 모티프, 순환운동으로서의 원형적 이미지, 화해를 지향하는 새로운 창조,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는 ‘죽음과 재생’ 등 엘리아데의 신화적 해석을 잘 활용하고 있다. 유기룡은 <배따라기>의 죽음을 일회적인 시간의 질곡 속에서만 존재하는 속세의 한계를 초월해서 보다 원초적이며 태초의 시간(in illo tempore)으로 귀의하려는 원초적인 욕구의 실현이라고 정의한다. 이재선은 <배따라기>의 떠돌이 방랑자 모티프를 <떠도는 네델란드인>의 모티프와 등치시키고 있다. 신에 대한 거역 때문에 네델란드 선장이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끝없이 바다를 떠돌게 되는 저주를 받듯이 <배따라기>의 주인공인 형은 그의 질투와 변덕 때문에 아내를 죽게 하고, 아우를 떠돌게 한 죄책감 때문에 험한 운명의 힘에 이끌려 떠돌게 된다⁸⁾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현대소설을 원형적으로 해석을 시도한 이상우⁹⁾는 동식물과 인간의 동일시, 생명체로서의 공간의식, 우주 에너지의 생명력 등을 기본 범주로 현대소설을 분석하고 있다.

위의 논의들은 신화적 해석이 근대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본고의 문제 의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는 김동인의 근대성을 탈신화적 여성성과 전략적 죽음의 신화적 해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스롭 프라이, 미르치아 엘리아데, 조지프 캠벨, 질베르 뒤랑의 신화적 사고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역사, 사회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민간

6) 질베르 뒤랑(저)/유평근(역), 『신화비평과 신화분석』(살림, 1998), 202쪽.
 7) 유기룡, 「<배따라기>: ‘노래’로서 승화된 ‘아내’의 죽음」, 『韓國現代小說作品研究』(삼영사, 1989), 12~38쪽.
 8) 이재선, 『現代小說의 敘事 主題學』(문학과 지성사, 2007), 414쪽.
 9) 이상우, 『現代小說의 原型的 研究』(집문당, 1985), 33쪽.

신화의 전통신화적 의미를 염두해 두고 김동인의 세 작품을 정치하게 읽어갈 것이다. 또한 김동인의 여성성이 우리의 민간신화에 등장하는 지극히 한국적인 원형적 여성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근대화의 논리에서 여성이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원형적 여성성에 대한 정의는 민간 신화연구들¹⁰⁾에서 공통적인 원형을 끌어내고자 한다. 본고에서 바라보는 한국적 여성상은 우리 민간 신화들 안에 살아 있는 원형들을 이끌어 낸 개념인데, 즉 현실의 장애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더 나아가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며, 자기 주변의 삶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욕망의 주체자이며,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환경을 인내하면서 생산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원형적 여성성은 남성의 기존 질서를 확고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성에게 희생과 인고의 미덕이 과다하게 부여된 양가적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본고는 위에서 상정한 한국의 원형적 여성상에서 김동인의 여성들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그러한 과정이 탈신화¹¹⁾의 과정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송효섭은 탈신화의 시대를 절대적 기원이 해체되고 초월적 기의가 기원으로서의 불안정한 담론의 위상을 점유하는 시대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탈신화란 문화적 맥락에서 신화를 읽어내도록 만드는 장치가 된다. 근대는 신화로부터 해방되고 신화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렇다면 근대는 탈신화의 시대인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탈신화란 근대의 신화적 세계의 청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 모습을 명료하게 표출

10) 손중흥, 『다시 읽는 韓國 神話』(휴먼북스, 2004);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神話』(한겨레신문사, 2004); 조현섭, 『우리 神話의 수수께끼』(한겨레출판, 2006); 최원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韓國 神話』(여름언덕, 2004); 황쾌강, 『韓國 神話의 연구』(새문사, 2006); 김재용·이종주, 『왜 우리 神話인가』(동아시아, 1999); 나경수, 『韓國의 神話』(한얼미디어, 2005); 김열규, 『韓國 女性 그들은 누구인가』(한국학술정보, 2003). 위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신화의 많은 여성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천지왕본풀이」의 총명부인, 「재석본풀이」의 당금애기, 「바리데기」의 바리,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버, 「차사본풀이」의 강림도령 부인, 「삼공본풀이」의 검은장애기,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성주풀이」의 막막부인, 「궁상이」의 궁상이 부인 등 여성 주인공들이 가지는 의미를 귀납적으로 추론해서 민간신화에 등장하는 여성이미지를 한국의 원형적 여성상의 의미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11) 송효섭, 『脫神話의 神話들』(기과량, 2005), 63-67쪽.

하는 세상이 신화로부터 해방된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명료함은 다시 신화를 떠올리게 한다. 즉 송효섭의 논리로 풀어보자면 명료한 로고스의 세계에서 로고스가 은폐한 뮈토스를 읽어내는 작업이 탈신화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동인이 인물들 간의 운명, 사랑, 죽음 등을 배출시키는 방법은 지극히 탈신화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삶의 이해할 수 없는 영역과 그것의 예술적 승화를 보여주는 작품 세계는 신화적 삶의 방식을 다시 재현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작품들에서 죽어가는 여성 주인공들 즉 거세된 욕망의 대상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텍스트 전략의 의미를 신화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인형조종술의 궁극적 지향점이 근대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여성배제의 논리와 탈신화적 여성성 그리고 여성주인공들의 전략적 죽음의 의미가 근대성의 개념과 어떻게 착종되어 작품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밝히고자한다. 이러한 시도는 김동인의 정전들을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읽어냄으로써 텍스트의 의미 생산망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함이다.

II. 여성배제의 근대화 논리

우리 문학에서 근대라는 개념은 1920년대를 상징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문학사의 흐름이 되어왔다. 따라서 한국 독자들의 자연스런 독서 상한선이 1920년대의 문학이라고 지적한 최원식¹²⁾의 논리로 볼 때 김동인이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거론되는 데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작가의 무의식적 사유는 그의 문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김동인은 근대소설의 독자성을 처음으로 주창했고 근대적 작품의 생산 메카 역할을 했던 동인지 『창조』의 중심인물이었다. 그에게 근대성이라는 틀은 작품을 생산해내는 기본적 상상력의 토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임규찬¹³⁾은 이러한 근대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든 ‘서양’이 개입된 강요된 근대이며 타율적 근대임을 강조한다.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이라

12) 최원식, 『文學의 歸還』(창작과 비평사, 2001), 142쪽.

13) 임규찬, 「1920년대 문학과 근대성: 3·1운동과 근대문학」, 연세대 근대 한국학 연구소, 『韓國文學의 近代와 近代性』(소명출판, 2006), 82~100쪽.

는 異國의 문화유입 이전에 일본이라는 또 하나의 문명의 파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일본과의 타율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담론화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근대화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신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신교육과 자유연애를 주창하는 진보적인 상징성을 통해 근대성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광수의 여성인물들 역시 근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수동적 여성상의 폐쇄적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근대란 누구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논의는 되물어질 수밖에 없다. 근대란 완성된 남성들의 또 다른 남성—되기이다. 이 안에서 여성—되기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되기의 다양한 시도와는 다르게 근대문학에서 남성은 견고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들뢰즈¹⁴⁾가 말한 것처럼 남성의 권리와 권력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일 것인데, 이 남성의 질서는 문화의 다수성이자 표준이 되어왔다. 따라서 들뢰즈가 ‘남성—되기’는 없다고 한 말은 타당해 보인다. 남성이 문화의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 문화의 생성은 소수적이고 ‘여성—되기’의 모든 생성은 ‘소수자—되기’일 수밖에 없다. 근대 문학에서 ‘여성—되기’란 남성들의 문화적 기억 속에서 진행되어온 타율화의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김동인의 문학 속에 여성들은 어떻게 기억되면서 ‘여성—되기’ 과정을 겪고 있는가.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되기’가 얼마나 근대라는 개념과 교호하면서 진행되고 있는가. 근대라는 모호한 개념이 김동인의 여성그리기에 의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또는 모호하게 왜곡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920년대 김동인의 작품 안에서의 여성 주인공의 형상화와 비교해 볼 때, 1930년대 김유정의 여성 그리기는 매우 독특한 세계를 보여준다. 김동인의 「감자」처럼 매춘을 자행한 「산골나그네」의 나그네는 김동인의 복녀와는 다른 범주에 놓인다. 최원식¹⁵⁾이 「산골나그네」는 우리의 민담인 ‘이부열녀’의 이야기라고 주장한 것처럼 민담에 기초한 따뜻함이 문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김동인의 「감자」의 복녀의 탕녀이미지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김동인의 「감자」의 낮에 찢린 ‘복녀’, 「배따

14)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저)/김재인(역), 『천개의 고원』(새물결, 2001), 550~551쪽. 남성은 다수적인 문화주체이고 생성들은 소수의이다. 따라서 모든 생성은 소수자—되기라고 정의된다. 여성—되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變容시킨다. 생성의 主體는 언제나 남성이다.

15) 최원식, 「1930년대 단편소설의 새로운 정보」, 『문학의 귀환』(창작과 비평사, 2001), 197~214쪽.

라기]의 물에 빠진 ‘아내’, 「광화사」의 목 졸려 죽는 ‘소경처녀’는 독특한 세계의 은유로 해석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동인이 여성을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 ‘여성—되기’는 ‘욕망하는 여성—되기’인데 곧바로 그녀들은 ‘죽은 여성—되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세계질서 안에서 일종의 ‘여성—되기’는 숨겨진 野性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성적이고 원초적 욕망을 추구하는 ‘여성—되기’는 김동인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배따라기」의 아내는 성격 좋고 인물 좋은 말하자면 남편인 형보다 우월한 존재로 등장한다. 이 우월한 능력은 여성이라는 성의 분화 때문에 문제요인으로 작용한다. 남편은 자신의 아우에게 상냥한 아내를 의심하고 급기야 쥐를 잡는 행위를 불결한 성의식과 결부시켜 아내를 聖女에서 탕녀의 이미지로 전략시킨다. 그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남편의 저주처럼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남편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남편 즉 남성의 질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펼쳐 보일 기회도 제공되지 않으며 더욱이 항변할 기회도 없다. 물론 남편에게 ‘쥐’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남편의 질서 안에서 이미 타락한 아내의 이미지를 벗겨낼 힘이 없다. 그녀가 항변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라는 극단적 방법뿐인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배따라기 노래에 의해 원한의 소리로 기억될 뿐이다. 결국 남성의 질서는 여성을 희생양삼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감자」의 복녀는 출생에 있어서 매우 건전한 인물이다. 그녀는 몰락한 남편의 마지막 재산에 의해 팔려와 자기를 사온 남편을 위해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다. 빈민굴 안에서 복녀가 살아남는 방식은 그녀 자신의 원초적 여성성을 통해서 터득된다. 결국 성을 매개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국인데 여기에서 도덕은 복녀만을 재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을 사는 왕서방과 성을 팔도록 종용하는 남편은 도의적 평가를 벗어나고 있다. 복녀를 둘러싸고 있는 남성들은 이미 ‘남성—되기’의 견고한 틀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그들의 과잉된 성의식은 제도권 안에서 용인되고 더 나아가 성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이 더 강한 ‘남성—되기’의 질서로 보인다. 그 안에서 여성인 복녀는 왕서방에게 매매춘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순히 성매매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의식을 회복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비극은 바로 이러한 성에 대한 자각을 시작한 복녀의 ‘욕망하는 여성—되기’의 좌절에서 비롯된다. 나이 어린 복녀는 나이 많은 남편과 근대화의 성적 착취의 상징인 왕서방에 의

해 그녀의 ‘여성—되기’는 이중적으로 좌절되고 만다. 왕서방은 복녀를 성적 재화의 교역 대상으로만 여겼을 뿐 존엄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색시를 데려온 왕서방에 대해서 복녀는 질투까지 느끼지만 왕서방은 죽은 복녀의 시신을 두고 남편과 은밀한 거래를 한다. 복녀는 재화와 교환되는 물질적 가치일 뿐이다. 복녀의 성적 욕망은 ‘정조’라는 개념에 의해 ‘부정’한 것이라는 개인의 욕망 담론으로 몰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貞操는 주홍글씨처럼 박혀서 남성의 질서 안에서 소모품처럼 희생되고 있다.

「광화사」의 술거는 인물의 특성상 매우 그로테스크한 비정상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그가 그리는 여성상은 성모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재선은 이를 두고 ‘모성고착증’¹⁶⁾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동하의 주장처럼 전기적인 측면에서 김동인의 여성 인식 상을 들여다보게 한다. 그는 현실의 여성과 이상의 여성을 이분화시켰다. 바로 소경처녀가 그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김동인의 여성은 성적으로 자각되기 이전에만 살아남을 운명을 가진 것이다. 소경처녀는 술거가 들려주는 신비한 용궁의 세계를 상상하는 단계에서는 술거의 운명적인 여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술거와 하룻밤을 보내버린 속된 세계의 여성으로 전락하면 그녀는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배따라기」의 아내의 영혼이 슬픈 노랫말로 제의적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소경처녀도 술거의 미인도에 원망의 눈동자가 되어야 하는 희생양의 원형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예술작품으로 계속 살아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현실의 생존이 아닌 예술작품으로의 생존이 근대성에서 여성이 배제된 세계를 형상화시키고 있다고 읽힐 수 있다.

근대문학의 효시라고 김동인 스스로가 자칭하고 또 문학사에서 그리한 인식이 아무런 장애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김동인의 여성 그리기가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논리의 일환이 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단편 세 작품으로 작가의 귀납적 근대의식을 규명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대표성을 가지는 작품의 공통된 인식의 패러다임은 작가의 근대에 대한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단초로 독해될 수 있다. 따라서 김동인에게 ‘여성—되기’는 남성의 질서

16) 李在鉞, 『현대소설의 서사 주체학』(문학과 지성사, 2007), 57쪽. 모성고착증과 여성기피증(misogyny)이 보이며 광기 애호의 지향성을 나타낸다. 김동리 <무녀도>와 이문열 <금시조>도 같은 광기의 예술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여성—되기’가 성적 자각, 즉 자기 성적 정체성으로 이어질 경우 ‘여성—되기’는 반드시 ‘죽은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대화라는 질서자체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탈신화적 여성성과 근대성

김동인의 문학에서 본고가 설정한 작품들에 제시된 ‘여성—되기’는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인식해가는 야생의 회복 과정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야생의 성적 욕망은 근대라는 담론 안에서 거세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근대화에 나타난 여성배제의 원리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김동인의 여성성의 기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작가의 여성 그리기가 어떻게 근대의 개념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본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품의 여성들의 공통점은 성녀와 탕녀 사이에서 탕녀에 가까운 이미지를 보인다. 「감자」의 성에 눈떠가는 복녀, 「광화사」에서 인간의 속된 성욕을 느끼는 소경 처녀, 「배따라기」에서 나의 아우와 불미스러운 성적 담론에 연루되어버린 아내는 성녀라기보다는 탕녀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진다. 엘리아데¹⁷⁾는 성스러움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감정이 매우 양극적임을 논하고 있다. 성(聖)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움과 욕망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다. 김동인은 여성에 대해서 매우 극단적인 兩價性을 가졌다. 성스럽지 못한 여자는 죽음을 통해 성스러워진다는 논리 즉 노래나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으로 여성의 일화가 기억되는데 이는 성스러운 여자만이 살 수 있다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현실의 욕망구조에 기반을 둔 인물을 재현하기보다는 신화적인 이상개념을 여성인물에 도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동인의 여성들에게 우리 민간 신화의 여성적 원형의 잔재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신화의 여성들은 현실의 장애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 부정적 현실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욕망의 주체자이며, 자

17) 미르치아 엘리아데(저)/이재실(역), 『聖과 俗』(한길사, 1998), 24쪽.

신의 환경을 인내하면서 생산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긍정적인 신화원형은 남성의 질서를 강화시키는 신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원형신화의 여성들은 현부의 이미지를 고수함으로써 사회 구조의 틀 속에서 화석화된 인물 유형들이다. 본고에서 상정한 원형적 여성의 논리를 따라가면 김동인이 여성성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사고체계는 민간 신화의 사고체계와 다르다. 즉 여성의 존재가 문제의 발단이 되는 서양 신화적 사고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양신화에서 여성신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서양 신화에서 나타나는 여성신의 특징은 의심(프쉬케), 질투(헤라), 호기심(판도라), 금기를 지키지 못하는 약한 마음(세멜레) 때문에 문제를 보다 어렵게 만들어버린 부정적 대상으로 제시된다. 여성은 이성과는 거리가 먼 감성의 세계에 존재하는 타율적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다.¹⁸⁾ 이처럼 여성을 이성보다는 감성에 결박하면서 여성은 탈역사화 되었고 여성성에 대한 편견¹⁹⁾이 담론의 표면에 부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우리 민간 신화의 여성상은 문제 발생형이라기 보다는 문제 해결 형에 속한다. 어찌 보면 우리 신화의 주인공들은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신화의 여성들은 다양한 기의를 가진 기표들이다. 곳곳하게 어려움을 이기고 집을 지키는 현부형인 「성주풀이」의 <막막부인>과 「궁상이 굶」의 <궁상이 부인>, 홀로 남겨졌지만 세상을 보듬을 수 있는 여신으로 성장하는 오누이형인 「바리공주」의 <바리공주>와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자기 주장형인 「칠성풀이」의 <매화부인>과 「관청아기본풀이」의 <관청아기> 혹은 「세경본풀이」의 <자칭비>,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을 보살피는 삼신 할머니형인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간신화에 등장하는 여성신들은 인고의 현명함과 정절을 가지는 현부의 이미지를 가진다. 이러한 신화 전략은 여성신화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서사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민간 신화의 여성 원형 모델에 따르면 「배따라기」의 아내는 여기에서

18) 서양 신화의 여성성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래의 책을 참고한다. 김화경, 『世界 神話 속의 여성들』 (도원미디어, 2003); 장영란, 『神話 속의 女性, 女性 속의 神話』(문예출판사, 2001). 우리 신화의 원형적 여성성의 모델이 민간신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신화의 여성성과 대립된 세계로 이해할 수 있다.

19) 박숙자, 「近代文學의 形成과 感情論」, 『어문연구』, 131호(2006), 365쪽.

좀 벗어나 있는 인물이다. 「배따라기」의 아내는 매우 즉흥적인 인물로 등장하며 자기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항거로 자살을 선택하는 인물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 속에 함몰되어 맹목적으로 복수를 하는 인물에 해당한다. 지극히 감성적인 존재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한 사고를 진행시키지 않는다. 남편의 동생과 ‘쥐’를 잡는 행위가 남편에 의해 크게 오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주장을 꺾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을 자살로써 표출한다. 즉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 그녀의 죽음을 불러온 가장 큰 동기가 된 것이다. 심각한 의사소통의 장애인 의사소통 지체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지체현상은 「광화사」와 「감자」의 인물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광화사」의 소경처녀는 술거와 다른 의사소통체계를 가진다. 즉 용궁의 환상적인 세계에 대한 소경처녀의 상상력은 자신이 인간으로써 존재의미를 가지지 못한 시점에서 ‘不在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한 여성임을 자각한 후에 소경처녀의 용궁은 ‘실재하는 것’을 갈망하는, 즉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술거가 소경처녀를 바라보는 관점은 ‘성녀와 탕녀’라는 이분화에 의한 것이었다. 즉 아름답고 성스럽기까지 한 ‘어머니’를 닮은 신성한 여자인 소경처녀와 인간의 애욕을 알아버려서 그 신성한 영역이 훼손된 더러운 소경처녀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경처녀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표정이 보이지 않자 그녀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의 부재는 여성이 의사소통의 상호교류 대상이 아니라 여성은 타자화 되는 객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대화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탈신화화 되어 있다. 즉 우리 신화 원형의 여성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여성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원형적 여성상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화의 원형적 여성 이미지가 자신의 욕망이 거세된 타자적 존재인데 반해 김동인 작품에서 욕망의 주체가 된 여성성은 탈신화되어 남성의 질서 구축에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감자」의 복녀와 왕서방 사이에도 의사소통의 지체현상은 두드러진다. 복녀가 그려지는 모습을 살펴보면 처음과 나중에 무척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처음 부분에서의 복녀를 묘사한 것을 두고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서술된다. 그러나 중간쯤에 “그날부터 복녀

도 일 안 하고 공전 많이 받는 인부의 한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서술되면서 복녀의 인생관과 도덕관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녀는 삶의 도구로 성을 파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복녀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다음의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복녀는 차차 동리 거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 왕서방이 분주하여 못 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
— 「감자」 중에서

위의 진술에서 특히 “스스로”라는 표현은 복녀가 왕서방에게 단순히 매춘만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런데 왕서방이 복녀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돈을 媒介로 살 수 있는 교환적 가치를 지닌 존재일 뿐이다. 중국에서 여자를 데리고 온 날 밤 복녀는 얼굴에 분을 허얇게 칠하고 욕망을 가진 근대적 여성으로써 왕서방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왕서방은 복녀를 향해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 못 가”라고 매섭게 외면한다. 낮을 든 복녀는 실갱이 끝에 결국 자신이 그 낮에 찢려 죽는다.

이 세 작품의 여인이 죽는 이유는 공통적인 분모를 갖는다. 즉 자신의 욕망의 과잉이 부른 자연스런 인과응보라는 무의식적 기제가 작품 안에 깔려있다. 문체는 왜 그러한 무의식적 기제가 작가에 의해서 구사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작가의 이념적 지향점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돈과 성에 대한 여성의 욕망자체를 죄악시하고 그 의식자체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장치가 바로 탕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이르는 것이다. 근대의 상징인 자본과 욕망은 여성성과 공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인식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성스러워야한다는 이념적 가치를 타락한 여성의 최후의 종말을 보여줌으로써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음화를 드러내어 그것을 강화시킴으로써 양화를 견고하게 지키고자하는 논리의 연속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부정성을 통해 여성의 좌절을 그림으로써 남성의 긍정화가 더욱 분명해지는 논리일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바로 여성에 대한 탈신화적 논리이며, 탈신화의 작용으로 드러난 김동인의 남성적 근대성이다. 여성성의 탈신화화는 여성의 근대적 욕망이 죄악시되는 되는 전략이며 욕망

이 배제된 원형적 신화 여성성을 도덕적 가치로 삼는 무의식적 신화작용이다. 이는 질베르 뒤랑의 논리에 따르면 원형으로서의 근본적 위상, 역할이 실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신화적 담론이다. 이는 신화적 힘이 중화되어 약화되는 중간이며 비신화화되는 순간과 일치되는 개념이다.²⁰⁾ 김동인 작품에서 우리 신화의 생산적 여성 이미지를 견고하게 드러내는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신화적 여성성의 표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동인은 우리 신화의 여성 이미지와는 다른 탕녀이미지 만을 보여줌으로써 신화의 여성 이미지를 하나의 이념적 원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그리기는 탈신화적인 것이다. 탈신화를 통해 신화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다시 재구성하는 논리인 것이다. 원형 신화적 이미지가 남성의 사회질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념적 이데올로기이듯이 탈신화적 전략에 의해 구현된 여성의 이미지 역시 남성의 질서유지를 위해 작동하는 담론체계가 된다. 김동인이 설정하는 여성 신화적 이미지는 「광화사」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커다란 눈에 그득히 담긴 눈물, 그러면서도 동경과 애무로서 빛나던 눈,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

— 「광화사」 중에서

위의 묘사처럼 솔거에게 어머니는 신성한 존재인 것이다. 신성하지 못한 여성들은 탈신화의 기호작용을 거쳐 신성하지 못한 탕녀 이미지의 탈신화적 여성상에 방점을 찍게 한다. 그렇다면 솔거에게 성녀 이미지를 보이는 어머니상의 강조는 여성을 욕망의 감정을 소유할 수 있는 근대의 기표로 보지 않으려는 작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여성성은 문화생성의 기호 작용이면서 자기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자각하는 욕망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김동인은 여성주인공들이 돈과 성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죄악시하면서 그러한 여성의 이미지를 탈신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다. 결국 근대라는 것이 여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근대라는 개념 안에서 여성이 배제되었다는 위의 논리는 탈신화성의 전략이 근대성에서 여성을 배제한다는 논리를 보다 강화시켜 주는 것

20) 질베르 뒤랑(저)/유평근(역), 『신화비평과 신화분석』(살림, 1998), 202~203쪽.

이다. 근대적 욕망을 자각하기 시작한 김동인의 여성 주인공들은 전략적 기제 즉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죽음을 면치 못한다.

IV. 전략적 죽음과 근대성

김동인의 인물들 중에서 특히 여성 주인공들의 죽음은 매우 작위적이다. 이는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며 심지어 비현실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근대문학 속에서 김동인의 여성 재현 방식은 근대와 여성을 함께 바라보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감자」의 복녀의 욕망은 문학사에서 강한 파급 효과를 가진다. 근대문학에서 김동인의 “복녀”는 하나의 문화적 기억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적 기억이란 개인과 집단이 동일한 규범, 관습, 풍습이라는 토대 위에서 공유된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현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 역사와 신화, 트라우마와 노스텔지어, 의식적 무의식적 공포나 욕망간의 복잡한 동학(dynamic)으로부터 나온다.²¹⁾ 문화사에서 여성은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감성의 대상으로 과잉된 정서를 분출하는 기호로 작용했으며 고정된 이미지를 구축했다. 질베르 뒤랑²²⁾에 의하면 이미지란 고백하기 어려운 무의식과 고백된 의식화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 김동인의 탕녀 이미지는 남성 질서의 근대 형성이라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표출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탈신화적 여성 아이콘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문학작품이 김동인 「감자」의 복녀 이미지인 것이다. 여성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은 주로 남성들의 공적 기억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화를 만드는 주체들이 대부분 남성이었고 여성은 계산된 남성주체들에게 관찰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김동인의 소설 「감자」는 영상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에로티시즘의 과잉된 여성욕망이라는 고정된 의미를 획득하게 되며 그 이후에 등장하는 한국 영화의 상당부분의 여성이미지가 복녀의 이미지를 따른다.²³⁾ 따라서 영화 속 여성의 역할은 현실의 모습과는 상

21) 김양선, 「여성성과 대중성이라는 문제 설정: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의 재현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10호(2005), 140쪽.

22) 질베르 뒤랑(저)/진형준(역), 『상상력의 과학과 철학』(살림, 2000), 46쪽.

당히 다른 일상적이지 않은 인물들이 대부분 캐스팅되었다. 무당, 귀신(여귀), 양공주, 기생, 대리모(씨반이), 작부, 식모, 일탈하는 유부녀, 노처녀, 광녀, 첩, 열녀 등 많은 여성의 스펙트럼은 다소 감정의 과잉을 부추긴다. 이렇게 여성은 문화에서 타자화 되고 있었다. 그러한 타자화의 측면은 본고에서 다루는 김동인의 여자 주인공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타자에 의해 죽고 또 타인에 의해 죽음이 기억되는 전략이 죽음의 타자화 작업이다.

서사의 진행에 있어서 작가인 ‘나’의 개입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액자형 소설인 「배따라기」와 「광화사」는 김동인 자신이 밝힌 인형조종술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개입이 액자화 되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감자」역시 그러한 이야기 구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복녀에 대한 서술과 복녀가 놓인 공간이 충분히 작위적인 조작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작품이 현실 바로 그곳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배따라기」의 아내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주장하지도 않은 채 급작스런 작가의 장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고 「감자」의 복녀 역시 너무도 급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을 맞이한다. 「광화사」의 소경처녀의 죽음은 더욱荒唐하기만하다. 술거라는 화가의 예술적 욕구 충족을 위해 살인이 자행되는 것인데, 「광염소나타」와 함께 예술가 소설로 읽혀지는 근거가 되어왔다.

본고에서는 인형조종술²⁴⁾이라는 작위적인 기법까지 천명한 김동인이 왜 여성 주인공들을 갑작스럽고 황당하게 죽음에 이르기 하는지 그 안에서 노리는 작가적 효과는 무엇인지 또 그러한 어이없는 죽음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근대성이라는 문화적 기억으로 작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기룡²⁵⁾은 <배따라기>의 아내의 죽음을 속죄양이나 모태회귀로의 상징으로 읽어간다. 그 때 아내가 빠져죽은 ‘물’

23) 한국의 문예영화의 성공은 여성그리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감자>, <땡땡>, <갯마을>, <백치아다다> 등을 위시해서 <뽕>, <배따라기> 등 여성의 영상화 기법에서 “복녀”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24) 김윤식·정호용, 『한국소설사』(문학동네, 2000), 91~92쪽. 인형조종술은 참예술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참예술을 그리는 자를 참예술가라 한다면, 그는 참된 창조자이므로 곧 신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김동인은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하는 글에서 이 사실을 내세운 바 있다. 곧 두 작가 중 톨스토이가 더 위대한 참예술가인데 그것은 자기가 창조한 세계와 인물을 인형 놀리듯 했기 때문이다.

25) 유기룡, 앞의 논문, 12~38쪽.

은 당연히 신화적 원형적 상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죽음이 태초의 시간으로 귀의하려는 것이라면 작품의 근본적인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내의 죽음이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재생을 시도한 초월적인 것이라면 김동인이 조작한 인형술과는 좀 어긋나다는 것이 본고의 논지이다. 아내의 이미지를 영원한 삶의 동반자로 형상화한 민간 신화의 원형적 여성상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배따라기」의 여인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내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물에 빠져죽은 것이다. 여기에서 물은 모태 회귀라기보다는 남편에게 평생을 떠돌게 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다. 물에 빠져죽은 아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안 「배따라기」의 남편은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술에 걸려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볼 때 영유배따라기를 죽음의 예술적 승화라고 보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획일화시키는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따라기」에서 ‘물’이 모태회귀라고 본다면 아내의 죽음은 아무런 주술성도 가지지 못하고 만다. 아내의 죽음 이후 아우는 마을을 떠나 떠돌고 형은 아내와 아우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나긴 씻김굿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유배따라기’의 노래는 아내의 죽음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 아니라 아내와의和解를 염원하는 남편의 속죄의식이 담긴 주술적 혹은 죄 씻김의 노래이자 한을 머금은 노래일 것이다.

그렇다면 「광화사」의 소경처녀의 죽음은 어떠한 인형조종술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일까. 이 작품은 소경처녀의 죽음이 주로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여인의 녀 정도로 해석되어온 것이 그간의 주된 논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 소설이라는 꼬리표에서 더 이상 진전된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워진다. 본고는 소경처녀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처녀의 눈은 세 가지로 구체화되어 묘사된다. 환상과 “신비를 볼 수 있는 신성한 눈”, “여인과 애욕의 눈”, “원망의 눈”으로 그려지고 있다. 주로 지금까지 신화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을 논한 논의들에서는 신성한 눈과 애욕의 눈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되어 왔다. 여인의 영혼이 그림에 點化된 것으로써 인간의 영혼이 사물에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본다면 이것만으로도 신화성은 획득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원망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逐邪的 의미를 신화적 상상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여인의 죽음이 화상의 그림으로 옮겨와서 예술작품을 완성시키는데 관

심을 두었다면 본고는 이 그림의 신화적 주술성에 초점을 두고 소경 처녀의 죽음의 의미를 바라보고자 한다. 소경 처녀가 죽고 나서 작품 마지막에 묘사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수일 후부터 한양성 내에는 괴상한 여인의 화상을 들고 음울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광인 하나가 생겼다...<중략>...이렇게 수년간 방황하다가 어떤 눈보라치는 날 돌베개를 베고 그의 일생을 마감하였다. 죽을 때도 그는 그 죽자는 깊이 품에 품고 죽었다.

— 「광화사」 중에서

위의 인용문에서 화공은 소경처녀의 “원망의 눈”이 찍힌 여인의 화상을 품고 방황하다가 죽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소경처녀의 원망적 주술이 가지는 신화성이다. 죽음의 예술작품으로의 승화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정치하게 파악하지 않는 데서 오는 표층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다. 배따라기의 노래나 화상의 눈은 예술작품으로의 승화라고 보기엔 지나친 해석의 단순함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서사는 그럴듯함에서 작품의 리얼리티를 획득한다. 그런데 김동인에 와서 그럴듯함, 즉 乏盡性(vraisemblable)²⁶⁾이라고 칭하는 개념이 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크리스티앙 메츠는 이 용어를 사실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속성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작위적인 김동인 여주인공들의 일련의 죽음은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乏盡性이 사물과 세계의 반영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 사실과 서사적 진실을 둘러싼 일련의 規則을 창출하는 데서 오는 효과²⁷⁾임을 인정하더라도 작위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반박할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 그렇다면 김동인은 여성들의 죽음을 왜 전략적으로 작품 안에 끌어오고 있는 것인가 다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 세 작품으로 전체 작가론의 죽음의식을 보편화시키는 데는 해석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양상을 살펴보고 해석해내는 것은 여성의 전략적 죽음이 김동인의 작품의 근대성을 이해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김동인의 단편 세 작품 안에서 죽음의 재현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해질 수

26) 로버트 스텐(외 저)/이수길(외 역), 『어휘로 풀어 읽는 영상기호학』(시각과 언어, 2003), 366쪽.

27) 박상순, 『사실주의 소설의 재인식』(한국학술정보, 2005), 199쪽.

있다. 「감자」처럼 죽음이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소멸 그 자체일 수 있고, 「배따라기」와 「광화사」처럼 여성 주인공들의 죽음이 살아있는 남자 주인공들의 삶에 반사 굴절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술성을 걸어 남자 주인공 역시 죽음 자체로 소멸되거나 상실될 존재들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은 내세에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한국적 죽음의 의미를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화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죽음은 삶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준다는 범박한 의미를 가진다. 이 의미는 죽음 이후의 내세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집트의 오시리스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그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우리 신화에서는 바리공주가 저승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현실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또 오르페우스의 부인 에우리디케나 일본의 이자나기의 부인 이자나미처럼 죽음의 세계에만 존재할 수도 있다.²⁸⁾ 어쨌든 죽음의 세계는 죽음이 삶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우로보로스 뱀처럼 삶의 다른 국면으로 순환적 세계관으로 읽혀져 왔다. 그런데 김동인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신화적 사유를 접목시키는 제동이 걸린다. 복녀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신화적 죽음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내와 소경처녀의 죽음도 현세의 노래와 그림의 축사적 주술성을 가지는 것으로만 읽혀지고 더더욱 남자 주인공들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 이후에 담긴 죽음의 의미는 신화적 죽음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물론 「배따라기」나 「광화사」의 경우처럼 죽음 후에 남는 예술 작품인 노래와 그림으로 죽음의 신화적 의미를 찾고자 시도할 수 있지만 죽음을 삶의 다른 국면으로 바라보는 신화적 사유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 김열규²⁹⁾는 『한국인의 자서전』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고찰하고 있는데 죽음이란 못다 한 삶의 마무리이며 깨달음을 향한 새로운 통로가 된다고 말한다. 이는 죽음 역시 삶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죽음이 끝이 되어버리는 복녀의 이야기나 노래와 그림으로 죽음이 현현되는 김동인의 견해와는 좀 차이가 있다. 물론 유기룡이 해석한 대로 「배따라기」의 아내의 죽음이 남편의 배따라기에 의해 삶으로 연장되고 있다고 바라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신화적 사고의 죽음의 의미는 삶과 죽음이 마치 우주의 알처럼 서로 교호하면서 순환한다는 상상력이 있어야 하는데 부인의 죽음은 남편의 삶 동안에만 굴절되어 죽음의 세계까지

28) 표정옥, 『현대문화와 신화』(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48~49쪽.

29) 김열규, 『한국인의 자서전』(웅진, 2005), 252~278쪽.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내의 죽음의 굴절된 반사는 원으로 말하면 삶의 영역까지 반원을 그릴 뿐이다. 「광화사」의 소경처녀도 「배따라기」의 아내의 죽음과 비슷한 궤도에서 이해된다. 나경수³⁰⁾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턱의 영역<liminal zone>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영역 좌우에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이질적 세계로의 공간이동이 가능하고 탄생에 의해서도 이러한 공간이동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삶과 죽음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동인에게 과연 죽음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의 작품에서는 ‘복녀’처럼 죽음에 의해서 세계는 닫히거나 ‘아내’와 ‘소경처녀’처럼 상대방의 삶에 주술적 축사의 역할에 한정될 뿐이다. 즉 죽음은 삶의 이면이거나 삶의 또 다른 형식이라는 신화적 사유가 김동인의 작품에는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이러한 여성들의 죽음의 장치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있느냐가 해결되어야 하겠다. 전략적이라는 말에는 ‘인위적인’ 또는 ‘계획적인’이라는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는데 ‘인형조종술’과 ‘여성 배제의 근대 논리’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 안에서 진행되어야 신화의 세계는 구현될 것이다. 따라서 김동인의 작위적인 죽음은 근대성의 여성배제의 논리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결국 김동인의 여성 주인공들의 인위적인 죽음은 시대적인 관계, 즉 사회학적인 기호작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욕망하는 여성은 기존의 확고한 남성—되기의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근대화에서 여성의 욕망은 죽음이라는 작위적인 終末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마치 여성들의 욕망을 인형 다루듯이 과감히 파괴하고 있다. 김동인의 근대 개념 하에서 여성은 신화적 원형성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김동인의 작품들에서 인간의 욕망이 감금당한 시대적 의미는 죽음이라는 기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전략적 죽음은 첫 장에서 여성 배제의 근대성의 논리, 두 번째 장의 탈신화성에 의한 근대성의 논리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욕망은 근대적 자각의 기호작용인데 이러한 여성들의 죽음은 여성들의 욕망 생성을 차단시키는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작가의 근대성 안에서 여성

30) 나경수, 앞의 책, 114쪽.

은 排除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본 논의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김동인의 정전텍스트에 대한 다시읽기를 시도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생산망을 새롭게 구축해보고자 함이다. 하여 다소 논리에 비약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위험부담을 감내하면서 논의를 펼치는 이유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전 작품의 의미 생산성에 확장을 꾀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김동인의 작가론과 작품론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해석에서 오는 작품의 경직화를 풀어보고자 시도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다루고자 했던 것은 “여성성과 근대성”이라는 화두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여성 배제의 논리, 탈신화성, 전략적 죽음’ 등으로 세분화시킨 신화적 고찰이었다. 김동인의 단편소설에서 재현되는 여성 주인공들을 통해 작가가 바라보는 근대를 신화적 관점을 통해 읽어보고자 했고, 그러한 사유의 과정에서 김동인 작품에서의 근대성이라는 개념이 여성배제의 논리를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근대화에서 ‘여성—되기’의 욕망은 여성의 회복으로 그려지고 완성된 남성에게 의해 그 욕망은 차단된다는 논리였다. 여성의 현실적인 욕망은 허용되지 않으며 여성은 신성한 영역 안에서만 고상한 존재로 남아있어야만 존재의미를 획득한다. 여성성이라는 측면은 바로 근대의 배제된 원리의 확장된 은유 개념이었다. 그렇다면 여성을 근대에서 배제할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본고는 우리 민간 신화의 여성 원형성을 살펴보고 김동인의 여성 주인공들이 탈신화적으로 그려짐으로써 신화적 신성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탈신화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근대 배제의 논리와 탈신화적 여성성의 결말이 어떻게 죽음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김동인의 죽음이 신화에서 말하는 죽음과 어떻게 변별되는지 살펴보았고 왜 그러한 인형조작술 같은 죽음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고는 김동인의 여주인공들의 죽음을 전략적 죽음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사회학적인 기호작용으로써 죽음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이동하, 『金東仁 短篇 全集 1·2』. 서울: 가람기획, 2006.
- 곽상순, 『사실주의 소설의 재인식』.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 김병욱, 『문학과 신화』. 『한국문학과 신화』. 서울: 예림기획, 2006.
- 김양선, 「여성성과 대중성이라는 문제설정: 젠더화된 문화적 기억의 재현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10호, 시학과 언어학회, 2005, 139~159쪽.
- 김열규, 『한국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1.
- 김열규, 『한국인의 자서전』. 서울: 웅진, 2006.
- 김원중,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2.
- 김윤식·정호웅, 『한국 소설사』. 서울: 도원미디어, 2000.
-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론고』. 서울: 일지사, 1974.
- 김화경, 『세계 신화 속의 여성들』. 서울: 도원미디어, 2003.
- 나경수, 『한국의 신화』. 서울: 한얼미디어, 2005.
- 노스립 프라이(저)/임철규(역), 『비평의 해부』. 서울: 한길사, 2000.
- 로버트 스탬(외 저)/이수길(외 역), 『어휘로 풀어 읽는 영상기호학』. 서울: 시각과 언어, 2003.
- 로버트 A. 존슨(저)/고혜경(역), 『신화로 읽는 여성성She』. 서울: 동인, 2006.
- 미르치아 엘리아데(저)/이재실(역), 『이미지와 상징』. 서울: 까치, 1998.
- 박숙자, 「近代文學의 形成과 感情論」. 『어문연구』 131호, 2006.
-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서울: 현암사, 2003.
- 손종흠, 『다시 읽는 한국 신화』. 서울: 휴먼북스, 2004.
- 송현호·유려아, 「郁達夫와 김동인 소설의 여성문제」. 『비교문학론』. 서울: 국학자료원, 1999.
- 송효섭, 『탈신화 시대의 신화들』. 서울: 기파랑, 2005.
-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4.
- 엄미옥,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구조: <약한자의 슬픔>, <마음이 약한 자여>, <김연실 전>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10호, 시학과 언어학회. 2005, 221~244쪽.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유기룡, 「배따라기: ‘노래’로서 승화된 ‘아내’의 죽음」. 『한국 현대 소설 작품 연구』. 서울: 삼영사, 1989.
- 이강엽, 『신화』. 서울: 연세대출판부, 2004.
- 이동하, 「김동인의 삶과 문학」. 『김동인 단편 전집』. 서울: 가람기획, 2006.

- 이재선, 『한국 현대 소설사』. 서울: 홍성사, 1979.
-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 주제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7.
- 임규찬, 「1920년대 문학과 근대성: 3.1운동과 근대문학」. 『한국문학의 근대와 근대성』. 서울: 소명출판, 2006.
- 장영란, 『신화 속의 여성, 여성 속의 신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1.
-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서울: 황금부엉이, 2004.
- 조지프 캠벨(저)/이은희(옮김), 『신화와 함께하는 삶』. 서울: 한숲, 2004.
- 조현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서울: 한겨레출판, 2006.
- 질베르 뒤랑(저)/유평근(옮김),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서울: 살림, 1998.
- 질베르 뒤랑(저)/진형준(옮김), 『상상력의 과학과 철학』. 서울: 살림, 2000.
- 최기숙, 『환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최원식, 『문학의 귀환』.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 최원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한국 신화』. 서울: 여름언덕, 2004.
- 표정옥, 『현대문화와 신화』.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 황폐강, 『한국 신화의 연구』. 서울: 새문사, 2006.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근대문학의 선구자격인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재현을 통해 작가가 근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자 한다. 김동인의 여성성은 동시대의 이광수와 다르게 재현되고 있으며 30년대 대표적인 김유정의 여성성보다 다르다. 이는 김동인이라는 작가의 특이한 이력과도 연관지어 봄직하다. 이광수의 여성들은 문명개화와 함께 근대의 주체가 되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김동인의 작품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여성성은 여성이 단지 성스러움과 속된 것의 이분화의 공식에 의해 분리된다는 것이다. 그의 여주인공들은 근대화를 표방했건 표방하지 않았건 모두 성스러움에서 벗어나 있다. 성스럽지 않은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비극적 파탄을 맞는 희생양들이다. 이들의 결말은 우주적 운명이라기보다는 여성 주체의 과도한 또는 과잉된 욕망 때문에 파멸하거나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진다. 본 논의는 이러한 여성성의 표출을 여성 배제의 근대화 논

리라고 정의한다. 남성의 질서유지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단장되고 있지만 여성의 욕망 또는 자유의지는 근대화의 탈선된 부작용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근대의 풍경을 탈신화의 작용이라고 부른다. 우리 신화의 원형적 여성성은 강한 생명력과 지조를 가졌다. 막막부인, 원강아미, 궁상이 부인, 당금애기 등 많은 신화의 여성이미지는 한결 같이 가정을 지키는 티주신의 모습이며 강한 의지의 화신들이다. 그러나 김동인의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파멸하거나 파멸된다. 이러한 이탈된 여성성은 탈신화의 과정을 통해 신화화되고 있다. 즉 신화를 벗어남으로써 신화를 신성시하는 역작용을 거친다. 근대의 논리에 여성이 배제되고 원형적 여성성에서 이탈되는 특징 이외에도 김동인 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은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 그는 소설의 인물들을 ‘인형조종술’이라는 용어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소설 속의 여성 주인공들은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하거나 타살되기도 한다. 그들에게 죽음은 어떤 전략적 의미를 지니며 근대라는 개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투고일 : 2007. 7. 10.

● 심사완료일 : 2007. 9. 4.

● 주제어(keyword) : 탈신화(Post-Myth), 근대화(Modernization), 원형적 여성성(Archetypal Sexuality), 인형조종술(the skill of handling dolls), 전략적 죽음(Strategic Death), 욕망(Desire), 乏盡性(vraisemblable).